

세계선수권 전 종목 석권 농친 한국 양궁... 개인전서 金 '정조준'

'세계 최강' 한국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16년 만에 안방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 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명예 회복에 나선다.

대표팀은 전날(10일)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펼쳐진 단체전 결승전과 3위 결정전에서 금메달 1개(남자), 은메달 1개(여성), 동메달 1개(여자), 총 3개의 메달을 합작했다.

아쉽다면 아쉬울 만한 성적이다. 한국 양궁 리커브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으로 불린다.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며 세계 최고의 기량을 뽐냈고, 2021 양크턴 세계선수권에서도 전 종목을 싹쓸이했다. 직전 대회인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에서는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땀었다.

이번 대회는 2009년 울산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치러지는 16년 만의 홈 경기이자 국내에서 개최되는 3번째 세계선수권이었다. 국내 첫 세계선수권은 1985년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홈 경기의 부담감이 오히려 독이 됐을까,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가장 아쉬웠던 경기는 대회 8연패에 도전한 혼성전이었다.

'막강 듀오' 김우진(경주시청)-안산(광주은행) 조는 예선 1라운드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순항을 이어갔다.

이들은 예선에서 총합 1393점을 기록, 2019년 스페르토벤노스 대회에서 강채영(현대모비스)-이우석(코오롱) 조가 세운 1388점을 뛰어넘는 저력을 보였다.

이들은 준결승에서 독일을 누르고 결승에서 스페인을 만났으나 2-6 큰 점수 차로 패배했다.

김우진-안산 조는 2021 양크턴 대회 혼성전에서 금메달의 따낸 좋은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 은메달은 더욱 아쉬웠다. 아울러 한국은 2011년 토리노 대회부터 2023년 베를린 대회까지 총 7번의 혼성전에서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기



1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이 확정되 자기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석·김제덕·김우진 /뉴스

혼성 단체전, 스페인에 저 은메달... 8연패 무산 여자 대표팀, 2회 연속 결승행 좌절... 동메달 수확 2024 파리 올림픽 3관왕 김우진, 개인전 32강 탈락 홈 경기 부담 큰 듯... 부담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

에 이번 은메달이 더 뼈아팠다.

여자 단체전에서도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안산, 강채영(현대모비스), 임시현(한국체대)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대만과 치열한 접전 끝에 4-5로 석패했다.

여자 대표팀이 단체전 결승에 오르지 못한 건 1999년 리우, 2023 베를린 대회에 이어 세 번째다. 베를린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실패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베를린 대회에서 무관에 그쳤던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 3위 결정

전에서 인도를 5-3으로 꺾고 동메달을 수확,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개인전에서도 쓴맛을 봤다.

대표팀 '만렙'이자 '세계 랭킹 2위' 김우진이 남자 개인전 1회전 32강에서 '세계 랭킹 3위' 마르쿠스 달메이다(브라질)에 막혀 조기 탈락했다.

2024 파리 올림픽 3관왕이자 2021 양크턴 세계선수권 3관왕에 빛나는 김우진은 이번 대회에서도 3관왕을 노렸으나 1관왕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 해설위원이자 올림픽 금메

달리스트 출신 기보배 광주여대 교수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결과는 인력으로 할 수 없다"며 "선수들이 국내에서 열린 경기라 부담을 많이 느꼈을 거다. 결과와 상관없이 다들 잘했다. 꼭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기 교수는 양궁이 '상향 평준화'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자 단체 결승전 점수(대만·6-일본·0)가 조금 아쉬웠지만, 특설 무대 경험 부족 탓이 큰 것 같다"며 "한국 선수들을 꺾을 정도면 해외 선수들의 기량도 상당히 평준화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번 대회에 수확도 있었다. 남자 단체전에서는 김우진,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이 미국을 6-0으로 완파,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또한, 약체라 평가받아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컴파운드 종목에서 최용희(현대제철)가 남자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 경쟁력을 입증했다.

아쉬움과 성취감을 함께 안은 대표팀은 1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벌어지는 리커브 개인전에서 반동을 노린다.

이날 열리는 남자 개인전 16강에서는 김제덕과 이우석이, 여자 개인전 32강에는 안산, 강채영, 임시현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대표팀은 남은 경기에서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 교수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는 생각은 떨쳐내고, 목표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다"며 "세계선수권이고 올해 가장 큰 대회라는 점을 잘 기억하면, 자신들의 세운 목표를 상기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북돋웠다.



멕시코 카스트로프

황인범 빠진 '중원 조합' 속제

'독일 혼혈' 카스트로프, 멕시코전서 첫 선발 출격 적극성 활동량 등 합격점... 박용우와 호흡 물음표 '중원 사령관' 황인범 복귀 후 '최적의 조합' 찾아야

독일 혼혈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고 9월 A매치 원정 2연전을 소화한 미드필더 엔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가 합격점을 받은 가운데 최적의 중원 조합 찾기는 숙제로 남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한국 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친선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지난 7일 뉴저지주 헤리슨에서 열린 미국과의 평가전과 비교해 9명의 선수가 바뀐 가운데 시선은 중원으로 향했다.

대표팀은 이날 카스트로프와 함께 베테랑 박용우로 중원을 구축했다.

2003년 독일 뉘른베르크 출생으로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카스트로프는 이번 달 미국, 멕시코와 A매치에 출전하는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다.

독일 청소년 대표를 거친 그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소속 협회를 바꾼 뒤 이달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미국전에서 후반 교체로 투입돼 한국 선수로 첫 경기를 치른 카스트로프는 이날 선발로 낙점됐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열심히 배우고 있는 카스트로프는 이날 키오프 전 애국가가 나올 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홍 감독은 박용우에게 빌드업을 주로 맡기고, 카스트로프를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배치해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도록 주문했다. 몸싸움에 능한 파이터형 스타일의 카스트로프는 몇 차례 가로채기에 성공했고, 이는 한국의 역습에 중요한 시발점 역할을 했다.

전반 10분 배준호(스토크시티)의 오른발 논스톱 슈팅은 카스트로프의 가로채기에서 시작됐다.

또 전반 20분 오현규(헝크)의 일대일 단독 돌파도 카스트로프가 가로챘다.

공을 이강인이 찢러줘 만들었다. 비록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나, 카스트로프의 적극적인 중원 싸움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진 셈이다.

송영주 축구 해설위원은 "대표팀 내에서 카스트로프의 가치는 충분하다. 많이 뛰고 부딪히고 압박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게 필요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용우와의 호흡엔 의문부호가 따랐다.

다소 안정적이었던 미국전 백승호(비영업), 김민규(전북) 조합과 달리 중원에서 자주 공간을 내줬다.

카스트로프가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했음에도 시너지는 내진 못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카스트로프를 불러들이고 김진규를 투입했으나, 공수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송영주 위원은 "황인범이 뛰는 걸 봐야겠지만,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게 멕시코전에서 잘 안 됐다"며 "빌드업을 정확히 가져가고 수비 안정감 높이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흥민 최전방 기용과 스리백 전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홍명보 감독은 내년 북중미월드컵까지 이를 극대화해 줄 최적의 중원 조합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중원 사령관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황인범을 중심으로 카스트로프, 백승호, 김진규 등을 조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는 황인범과 김진규 또는 백승호를, 굳힐 때는 카스트로프와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다.

한편 대표팀은 10월10일 국내에서 브라질, 14일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뉴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은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찰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븐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영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의원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스마일 점퍼' 이상혁 금빛 점프... 도쿄 세계육상선수권 개막

13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려... 한국 선수는 이상혁 등 총 8명 출전해

최고의 육상 선수를 가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 '스마일 점퍼' 이상혁(웅진시청)이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하계·동계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로 평가받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계선수권에는 난민팀을 포함한 198개 팀, 2202명이 49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한국에서는 이상혁을 포함해 총 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세계 최고의 점프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은 이상혁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다.

올 시즌 출전한 7개 국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월드클래스 능력을 증명했다.

체코 실내대회(2m31), 슬로바키아

실내대회(2m28),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2m31) 등 실내 시즌 3개 대회뿐 아니라 왓 그레이비 챌린지(2m29), 구미 아시아선수권(2m29), 로마 다이아몬드(2m32), 모나코 다이아몬드(2m34) 등 실외 시즌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달 10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하일브론에서 열린 하일브론 국제 높이뛰기 대회에서 경기 원형 과정에서 종아리 쪽 불편함을 느꼈다.

부상 방지 차원에서 하일브론 대회를 소화하지 않은 이상혁은 이후 일정도 모두 거르고 도쿄 세계선수권대회에만 집중했다.

다행히 컨디션을 되찾고 정상 범위를 회복한 이상혁은 이번 대회에서 모든 우승하며 월드클래스 능력을 증명했다.

체코 실내대회(2m31), 슬로바키아

또 남자 세단뛰기 유규민(웅진시청), 남자 200m 고승환(광주광역시청) 등이 트랙&필드 종목에 출전한다.

도로 종목에선 남자 35km 경보 김민규(국군체육부대), 20km 경보 최병광(삼성전자), 남자 마라톤 박민호(코오롱), 여자 마라톤 최경선(제천시청), 임예진(충주시청) 등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한국 선수들뿐 아니라 세계적인 육상 스타들의 경쟁도 볼거리다.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이후 처음으로 2023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단일 세계육상선수권 3관왕(남자 100m·200m·400m 계주)을 차지한 노아 라이실스(미국)가 2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한다.

키세인 톱프스(자메이카·남자 100m), 레질레 테보고(보츠와나·남자 100m) 등이 라이실스와 경쟁할 예정이다.

체코 실내대회(2m31), 슬로바키아

/뉴스